

2025.02.14.(금) 증권사리포트

농심

4Q24 Re : 시장 기대치 하회

[출처] 하나증권 심은주주 애널리스트

4Q24 Re: 여러모로 아쉬운 실적

4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8,551억원(YoY -0.2%), 204억원(YoY -47.6%)을 기록했다. 일회성 비용(통상임금관련 총당금 등, 약 90억원 추정)을 감안하더라도 시장 기대를 하회한 수치이다. ① 별도 손익은 100억원 내외 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 소비 부진에 따른 판촉비 증가 및 일부 원재료 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수익성이 큰 폭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북미 법인 매출액은 YoY mid single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월마트 매대 이동이 점진적으로 가시화되면서 판매는 견조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경쟁 심화에 따른 매출 에누리 증가가 매출 성장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중국 법인 매출액은 YoY 감소세가 둔화되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일본/호주/베트남은 두 자리 수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화할 2025년

2025년은 해외 매출 Level-up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① 신제품 톰바 신라면 글로벌 런칭이 3월 본격화될 것으로 파악된다. 북미 법인은 월마트 매대 이동 효과까지 더해져 연간 YoY 두 자리 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남미로의 커버리지 확대도 탑라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② 2024년 국내 수출은 YoY 31% 고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유럽 판매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유럽 내 보폭 확대 기인해 수출 고성장세는 이어질 공산이 크다. ③ 중국 법인도 점진적 회복세가 전망된다. 실제로 4Q24 매출 감소 폭이 유의미하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저효과 및 판매 정상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아쉽지만 변화를 기다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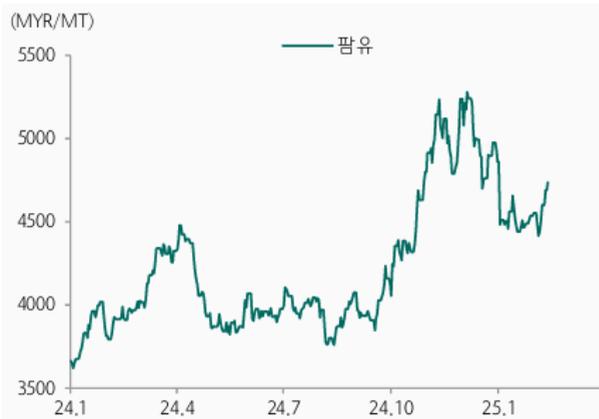
지난 4분기 실적은 여러모로 아쉽다. 그러나, 올해 해외 확장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평가한다. 국내도 수익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기 감안시 역사적 밴드 하단에 위치한 현 주가는 매력적이라고 판단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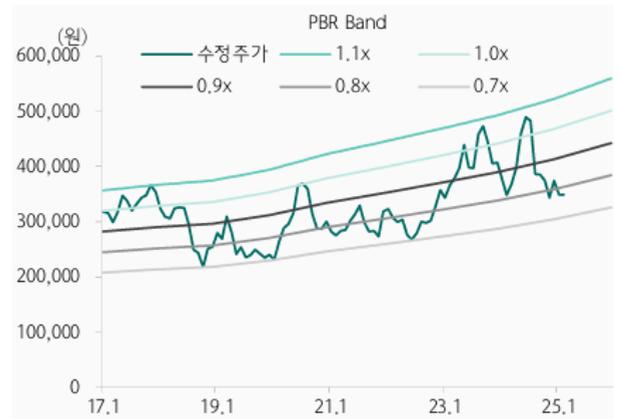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3,129.1	3,410.6	3,438.7	3,699.4
영업이익	112.2	212.1	163.1	203.1
세전이익	158.8	231.1	217.8	244.0
순이익	116.1	171.9	157.0	177.8
EPS	19,091	28,261	25,806	29,233
증감율	16.32	48.03	(8.69)	13.28
PER	18.70	14.40	14.49	11.94
PBR	0.91	0.99	0.86	0.76
EV/EBITDA	7.29	5.41	5.17	3.63
ROE	5.17	7.26	6.29	6.75
BPS	392,090	412,814	433,867	458,346
DPS	5,000	5,000	5,000	5,000

도표 2. 팜유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12개월 Fwd PBR Band



자료: 하나증권



두산테스나

실적 부진에도 업황 바닥 인식

[출처] BNK투자증권 이민희 애널리스트

기대치 크게 하회한 4Q24 실적, 모바일 재고조정 영향

연결기준 4Q24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28억 원(-16%QoQ, -3%YoY), -12억 원(적전 QoQ, YoY)를 기록, 컨센서스(매출 966억 원, 영업이익 154억 원)를 대폭 하회했다. 자회사 엔지온을 제외한 별도기준 매출액은 811억원, 영업이익 12억 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재고조정 영향으로 CIS 가동률이 60%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SoC는 가동률이 15%pt QoQ 가량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Exynos2500이 갤럭시 S25에 탑재되지 못하여 AP 물량이 더 줄었고, NAND 재고조정 영향으로 컨트롤러 매출이 급감했으며, 전장칩도 연말부터는 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1Q25 실적은 더 악화되나, 수요흐름은 바닥을 지나고 있다

전장칩 가동률이 작년말부터 급락하여 1Q25까지 영향을 주고, CIS, AP 가동률이 추가 하락하여, 1Q25 별도 매출액은 697억원(-14%QoQ), 영업손실 -61억원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종 스마트폰 OEM들의 부품 재고조정이 완료되는 시기이고, 이미 중국 수요는 작년말부터 개선 추세에 있어 수요흐름은 바닥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감가상각비가 줄고 보수적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투자 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41,000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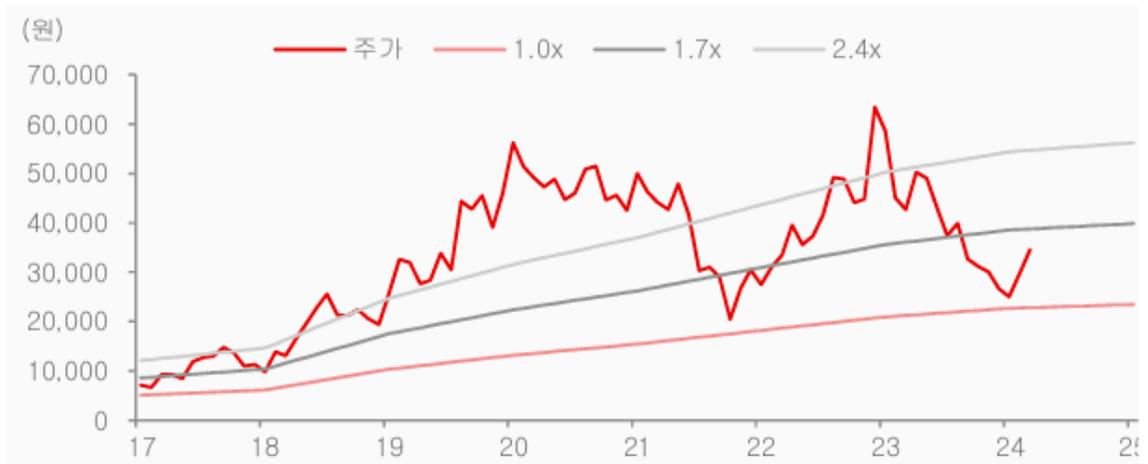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동사 주가는 이미 업황을 반영하여 P/B 1x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수요흐름 개선에 따라 최근 평균 P/B 1.7x 부근까지 반등한 상태다. 단기 조정이 예상되나, 이미 바닥을 지난 만큼 주가는 장기 상승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Fig. 1: 두산테스나 별도재무제표 요약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십억원)	278	339	364	335	391
영업이익	67	61	45	24	52
세전이익	61	45	33	15	46
순이익[지배]	52	49	37	15	46
EPS(원)	3,064	2,839	1,899	766	2,370
증감률(%)	11.0	-7.3	-33.1	-59.7	209.4
PER(배)	9.0	20.6	13.2	44.8	14.5
PBR	1.5	2.8	1.1	1.5	1.3
EV/EBITDA	3.6	5.4	2.8	3.2	2.1
ROE(%)	18.3	13.8	8.7	3.3	9.6
배당수익률	0.6	0.3	0.6	0.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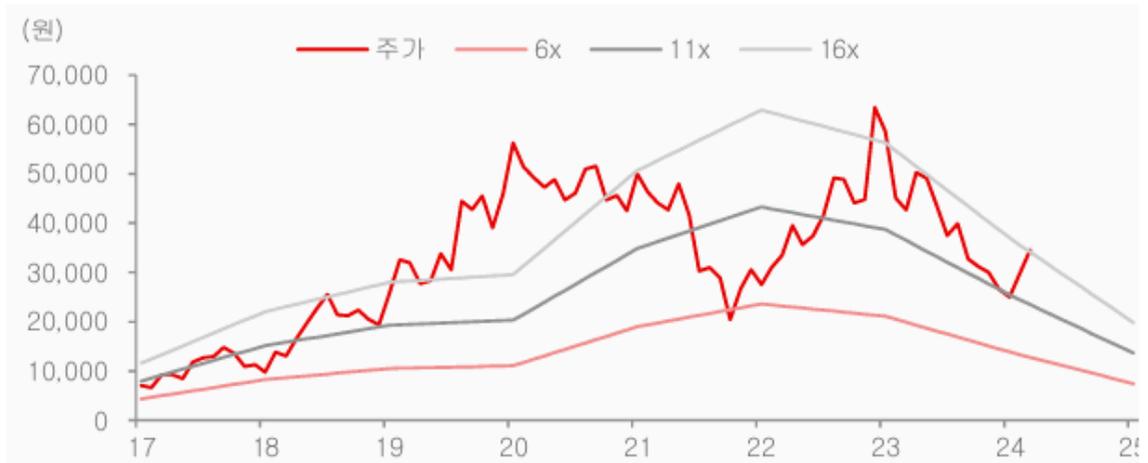
자료: 두산테스나, BNK투자증권 / 주: K-IFRS 별도

Fig. 2: 두산테스나 P/B 차트



자료: BNK투자증권

Fig. 3: 두산테스나 P/EBIT 차트



자료: BNK투자증권



스튜디오드래곤

편성은 확대되고 제작비는 절감하고

[출처] 하나증권 이기훈 애널리스트

주가는 텐트폴 작품 성과가 부진할 때가 단기 저점

3년만의 편성 확대에 대한 따른 실적 기대감이 높았으나, 제작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의 흥행이 극도로 부진하면서 2분기까지 상각비 부담이 발생하면서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과거 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텐트폴 작품 흥행 부진이 주가에 반영되면 단기 저점이다. 올해 편성과 실적이 회복되는 방향성은 뚜렷하기에 현재 주가에서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한다. 올해 연간 예상 편성은 25편 약 328회차로 2023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며, 2024년 대비로는 약 50% 확대되는 것이다.

4Q OP 54억원(흑전)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1,306억원(-19% YoY)/54억원(흑전)으로 컨센서스(37억원)를 상회했다. 편성이 예상 대비 4회차 많은 46회가 반영되었으며, , 등의 OTT 동시 방영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4분기에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상각비 규모도 예상보다는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분기에는 포함 80회차의 방영이 예상되나, 흥행 부진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며 2분기에 대규모 상각비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연간 실적은 상저하고의 흐름이 예상된다.

2025년은 가파른 편성 회복과 제작비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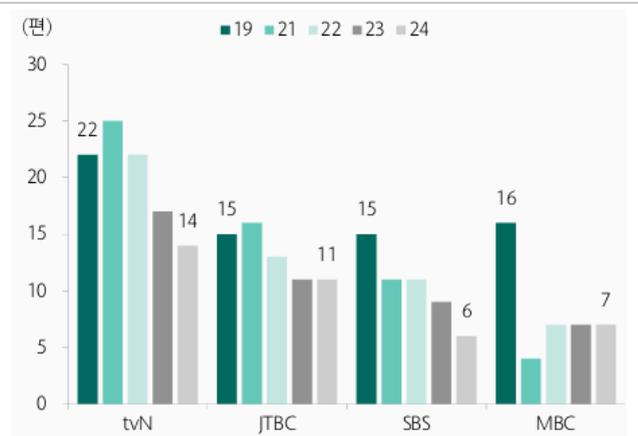
2025년에 큰 트렌드는 크게 2가지인데, 큰 맥락에서는 제작비 절감이다. 우선, 하반기 수목 드라마 슬롯이 재개 될 것이다. 기존 작품들과는 달리 라이징 스타 발굴과 저예산 작품 제작을 통해 수익성을 담보한 편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미 4분기부터 확인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12부작으로 편성될 것이다. 당장 회당 제작비를 줄이기는 쉽지 않기에 회차를 줄이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드라마 호흡이 빨라지면서 화제성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편성도 많아지면서 흥행 작품들이 많아질 것이기에 전반적인 선순환 구조가 예상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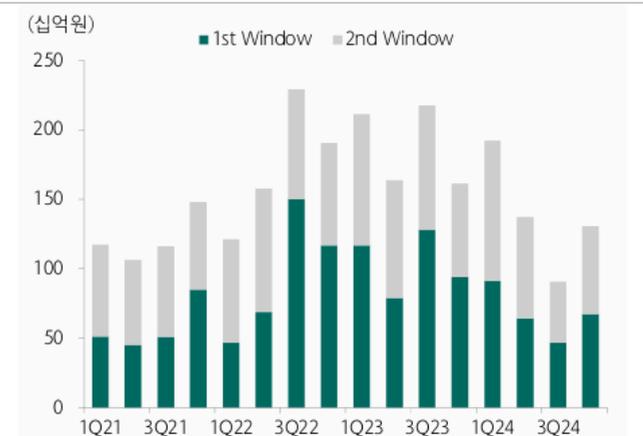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697.9	753.1	550.1	673.3
영업이익	65.2	55.9	36.4	57.7
세전이익	58.6	37.2	28.2	67.9
순이익	50.6	30.1	33.5	54.4
EPS	1,684	1,001	1,114	1,808
증감율	29.44	(40.56)	11.29	62.30
PER	51.07	51.45	38.64	23.29
PBR	3.91	2.19	1.75	1.59
EV/EBITDA	12.08	6.48	4.52	3.88
ROE	7.52	4.40	4.62	7.07
BPS	21,982	23,546	24,661	26,469
DPS	0	0	0	0

그림 1. 주요 채널 연간 드라마 편성 수 추이



자료: 언론, 하나증권

그림 2. Window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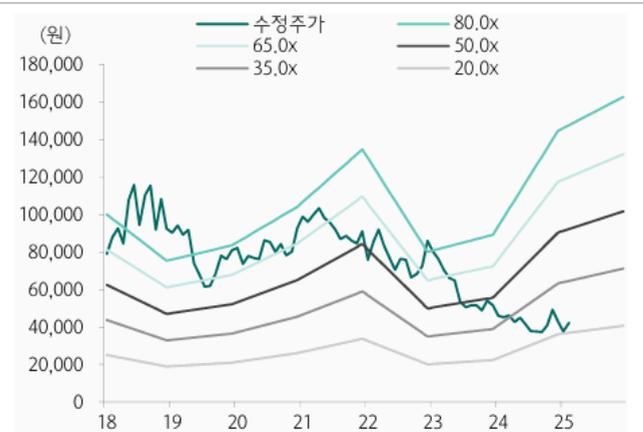
주: 1st Window는 TV 편성, OTT 오리지널, 협찬 등 / 2nd Window는 VOD, Licensing 등
자료: 스튜디오드래곤, 하나증권

그림 3. CJ ENM/스튜디오드래곤 시가총액 추이



자료: 하나증권

그림 4. 스튜디오드래곤 12MF P/E 밴드차트



자료: 하나증권



제이엘케이

미국 진출까지 한 걸음 남았다

[출처] 유안타증권 백종민 애널리스트

'25년 매출 가이드스 미국 85억원, 일본 65억원, 국내 50억원

2/10~11일 진행한 제이엘케이 NDR에서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해외 수익 창출 로드맵에 초점. '25년 지역별 매출 가이드는 미국 85억원, 일본 65억원, 국내 50억원으로 총 200억원. '2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해외 매출 확장을 추진할 계획

연초 의료AI 산업 부각. ①오픈AI CEO 샘 올트먼의 의료용 생성형AI 개발 추진 소식, ②식약처의 생성형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공개 등이 유효. 최근 시장을 주도해온 생성형AI 키워드가 의료AI 산업과 결합된 점에서 긍정적. 단기 이벤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이 중요하다는 판단. 특히 미국 시장 안착이 업종 내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미국 로드맵, 3Q25E JLK-LVO의 보험수가 획득 완료, 4Q25E 200개 병원에 공급, 병원 당 연간 12만 달러를 수취할 계획. 동사의 미국 시장 안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①뇌졸중 AI 솔루션 선두업체(Viz.ai, RapidAI)가 시장을 형성 및 매출 시현 중. AI 솔루션 도입 당위성 확보 과정이 생략되고 보험수가 획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동사 역시 Viz.ai의 솔루션 수가 획득에 참여했던 3개 글로벌 컨설팅사 계약 후 보험 트랙 선정 완료. ②현재 12개의 현지 대형병원과 거점 계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 지난 2/5~7일 진행된 국제뇌졸중학회(ISC 2025)에서 모바일 의료전용 통합 어플리케이션 Snappy가 경쟁 우위 요소로 작용, 추가 거점 계약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 각 거점은 수십 개의 산하의료기관 보유, 수가 획득 후 빠른 도입이 가능. 200개 병원 공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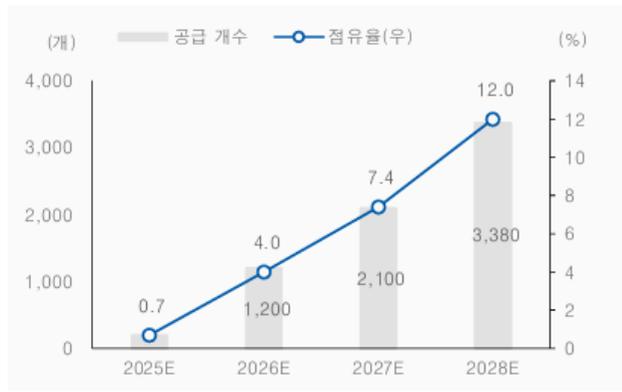
일본 로드맵, 1Q25E 유통사 계약 완료, 4Q25E까지 200개 병원에 공급, 병원 당 6,500만원을 수취할 계획. 매출 가시성 제고를 위해 현지 의료현장 상황에 맞춘 전략적 행보를 채택한 것으로 판단. 일본은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6명 이상 보유 병원 대상에만 수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유통사를 활용한 간접 판매가 시장 진출에 용이. 2개의 일본 대형 종합상사의 의료기기 유통 자회사와 계약 체결 임박. 각각 400개, 200개 병원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 추후 일본 보험 수가 취득을 통한 직접 판매 방식도 추진, 국내 대비 높은 수가(P)와 65세 이상 인구 비율(Q)을 보유한 글로벌 3위 시장을 공략할 예정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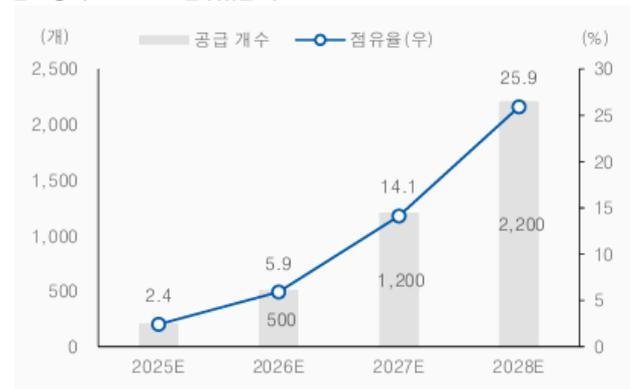
계산 (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매출액	4	4	3	2
영업이익	-8	-7	-9	-7
지배순이익	-8	-8	-9	-7
PER	-16.9	-15.4	-8.8	-35.8
PBR	4.2	4.8	4.7	22.3
EV/EBITDA	-18.4	-18.3	-11.5	-44.3
ROE	-22.8	-27.7	-44.3	-51.7

미국 병원, 이미징센터 연도별 점유율 목표



자료: 제이엘케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본 병원, 진료소 연도별 점유율 목표



자료: 제이엘케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교촌에프앤비

4분기 예상치를 상회한 비용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4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

4분기 매출액 1,259억 원(전년동기대비 +13.2%)으로 당사 추정치를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은 55억 원으로 약 -45% 하회하였다. 예상치를 넘어서는 고정비 증가와 1회성 비용 발생이 기대치를 하회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분기 영업환경은 12월 접어들면서 다소 부진하였지만, 1) 가맹지역본부 전환에 따른 효과와, 2) 소비자 수요 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성장
반면, 비용 증가는 당사 추정치를 상회하면서 이익을 감소시켰는데, ▶ TV 광고 판촉 비용 전년대비 약 30억 원 추가, ▶ 거래처 대손상각비 약 13억 원, ▶ 가맹지역본부 인력 흡수에 따른 인건비 증가. 당초 3분기까지 이에 대한 비용 증가가 크지 않았기에, 1회성 비용을 제거할 경우 판관비가 안정화 될 것

2025년 실적 개선 그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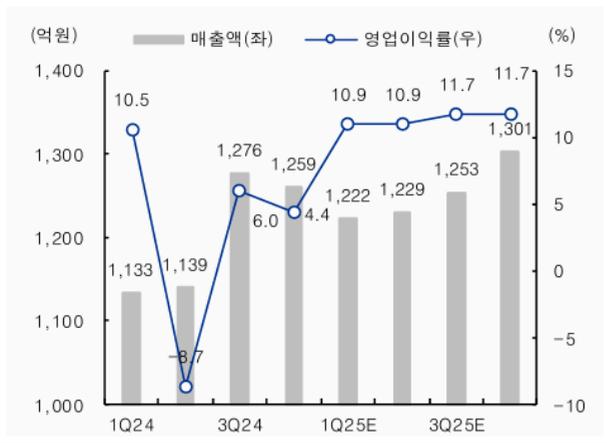
4분기 다소 부진했지만, 25년 개선 전망 여전히 유효. 1) 가맹지역본부 전환에 따른 외형 및 수익성 개선 효과가 당사 추정치를 넘어서고 있고, 2) 대손상각비 등은 점진적으로 환입 될 가능성이 높으며, 3) 스포츠이벤트 종료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4) 주요 종속회사 개선 가능성, 5) 추가적인 물류비 및 고정비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 올해 구조적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긍정적 시각은 유효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250원 유지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517	445	481	501	536
영업이익	9	25	15	57	62
세전이익	7	18	8	54	59
지배주주순이익	5	14	1	48	54
EPS(원)	107	287	49	969	1,071
증가율(%)	-82.1	168.8	-82.9	1,875.1	10.6
영업이익률(%)	1.7	5.6	3.1	11.4	11.6
순이익률(%)	1.0	2.9	0.2	8.4	8.6
ROE(%)	3.0	7.8	0.7	23.2	21.2
PER	43.1	13.0	111.3	5.5	5.0
PBR	1.3	1.0	0.8	1.1	1.0
EV/EBITDA	13.0	5.9	6.4	3.8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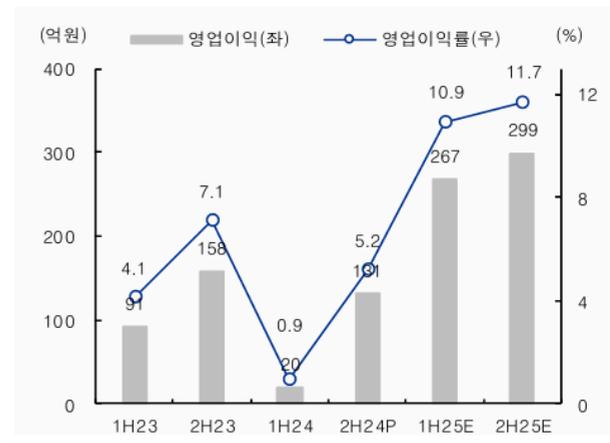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교촌에프앤비 분기별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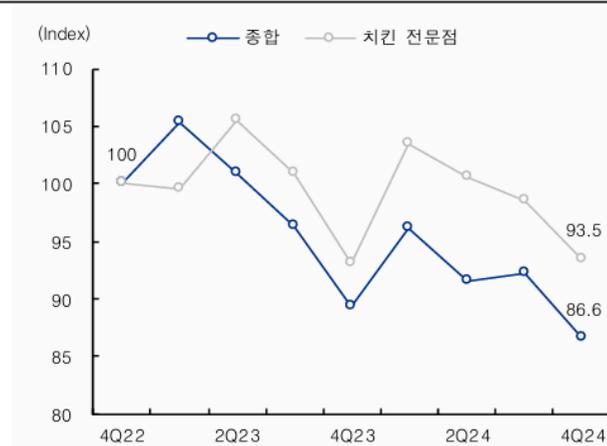
자료: 교촌에프앤비, IBK투자증권

그림 2. 교촌에프앤비 반기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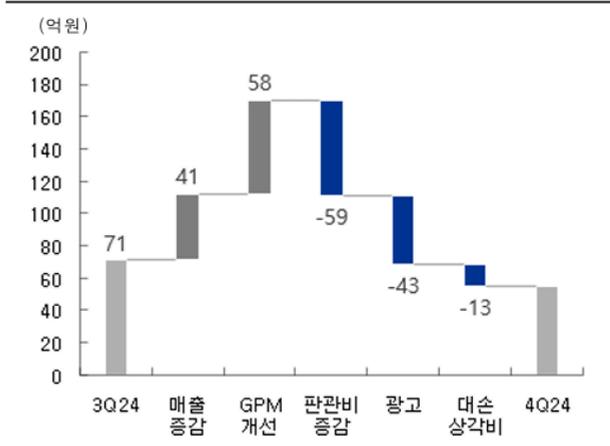
자료: 교촌에프앤비, IBK투자증권

그림 3.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추이



자료: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IBK투자증권

그림 4. 2024년 4분기 영업이익 변동내역



자료: 교촌에프앤비, IBK투자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압도적인 방산의 화력

[출처] 키움증권 이한결 애널리스트

4분기 영업이익 8,925억원,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 매출액은 4조 8,311억원(yoy +56%), 영업이익 8,925억원(yoy +222%, OPM 18.5%)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하였다.

지상방산 부문에서 매출 3조 3,647억원(yoy +75%), 영업이익 8,698억원(yoy +172%)를 달성하며 방산 부문의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전사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방산 매출 중 해외 매출은 1조 8,500억원(yoy +158%)를 달성하였다.

4분기 폴란드향 K9/천무 인도 물량이 각각 40문, 12대가 납품되었다. 이번 분기에는 폴란드향 방산 매출이 외에도 이집트 K9 개발 매출, 모듈식 장약 납품 등 기타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항공우주 부문은 매출 5,952억원(yoy +39%), 영업손실 460억원(적자지속)을 기록하였다. 이번 분기 GTRSP 영업손실 약 240억원과 군수 사업 관련 총당금, 연말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의 영향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지상방산 부문의 매출과 수주 성장 지속 전망

2025년 매출은 26조 2,547억원(yoy +133.5%), 영업이익 2조 8,447억원(yoy +64.9%, OPM 10.8%)을 전망한다. 올해도 지상방산 부문은 폴란드향 K9/천무의 인도량이 각각 70문, 50대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어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수주 측면에서도 연초부터 다양한 지역에서 K9/천무/레드백/탄약 등 관심을 표명하며 신규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 베트남 등에서 K9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루마니아는 레드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이집트, 에스토니아, 중동 등 여러 지역에서 천무 도입을 추진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거 동사와 무기를 거래한 국가들이 다른 무기 체계에도 관심을 가지며 수주 확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항공우주 부문도 올해 군수 사업 확대와 LTA 물량의 증가로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650,000원으로 상향

지난 10일 장 마감 후 동사는 계열사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약 1.3조원에 취득할 예정임을 공시하였다. 동사의 별도 기준 한화오션 지분율은 23.1%에서 30.4%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25년부터 한화오션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밸류에이션 평가 방식을 SOTP로 변경하며 목표주가를 650,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BUY를 유지한다. 현재 목표주가는 25년 실적 추정치 기준 PER 18배 수준이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7,060.4	9,359.0	11,246.2	26,254.7
영업이익	400.3	691.1	1,724.7	2,844.7
EBITDA	663.1	1,030.2	2,078.8	3,194.4
세전이익	195.4	1,214.8	2,649.2	2,760.0
순이익	146.6	976.9	2,545.1	2,092.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95.4	817.5	2,294.6	1,650.3
EPS(원)	3,858	16,147	50,340	36,207
증감률(% YoY)	-22.7	318.5	211.8	-28.1
PER(배)	19.1	7.7	6.5	13.8
PBR(배)	1.30	1.79	2.72	3.35
EV/EBITDA(배)	8.0	9.5	8.3	8.5
영업이익률(%)	5.7	7.4	15.3	10.8
ROE(%)	6.8	25.6	51.0	27.0
순차입금비율(%)	12.7	50.0	13.5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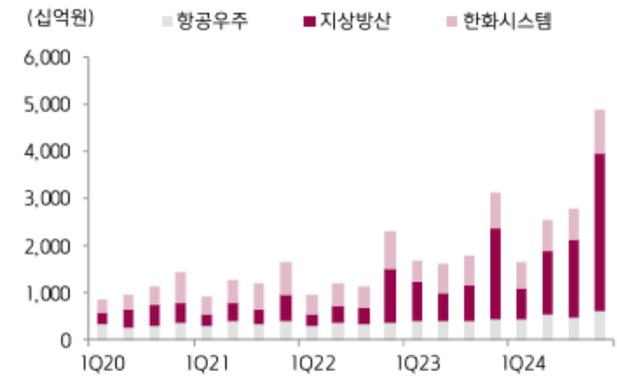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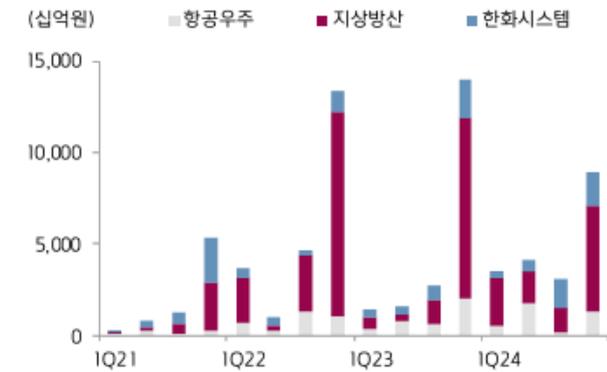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문별 매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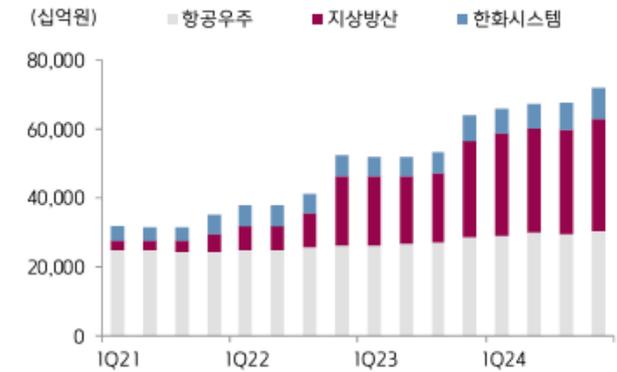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문별 신규 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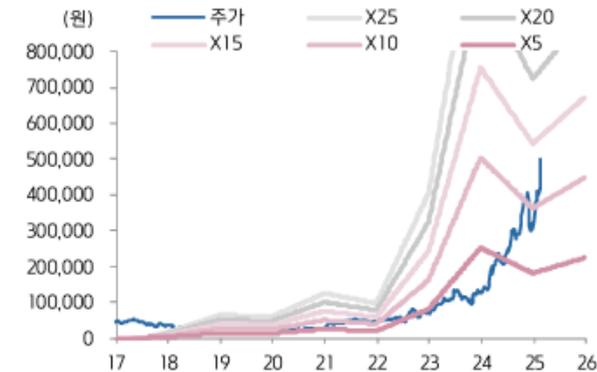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문별 수주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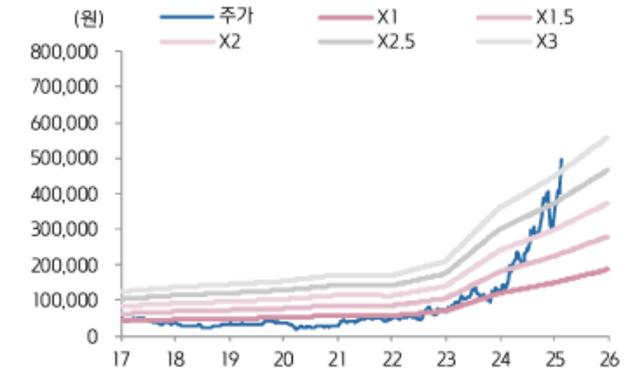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M Forward P/E 밴드 차트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M Forward P/B 밴드 차트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디아이티

방향성과 Valuation 모두 긍정적

[출처] 유안타증권 백길현 애널리스트

4Q24 영업이익 99억원으로 추정치 크게 상회

동사 4Q24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92억원(YoY +39%, QoQ +199%), 99억원(OPM 20%, YoY +67%, QoQ 210%)을 기록. 연말 일회성 비용까지 고려하면, 기존 추정치(매출액 345억원, 영업이익 74억원)를 크게 상회한 바. 국내 메모리반도체 고객향 DRAM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요는 예상대비 높았으며, 북미 메모리반도체 고객향 초도 장비 공급으로, Laser Solution 매출액이 320억원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만원 유지

2025년 연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15억원(YoY +21%), 376억원(OPM 27%, YoY +62%)으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할 것으로 전망. Laser Solution부문 예상 매출액은 980억원(YoY +36%)으로 전사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 국내 주력 메모리반도체 고객향 DRAM 1b/c nm 투자가 전년비 증가하고, 북미 등 고객 다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

2월 국내 반도체 업종 주가는 Conventional 메모리반도체 밸류체인이 시장을 Outperform 하고 있음. 1H25 계절적 비수기로 인한 실적 우려 등을 주가가 선반영했던 가운데, 1)최근 관세 정책 변화를 대비한 PC 제품 중심의 Rush order 및 2)중국 부양책 '이구환신' 효과로 예상대비 Consumer향 수요가 양호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당사 리서치센터는 1)1H25 Conventional 메모리반도체 중심의 재고소진 마무리, 2) 2026년 본격 출시 예정인 차세대 HBM 시장 내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DRAM 1b/c nm 및 NAND 300L 이상의 투자 규모가 예상대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동사 2H25~2026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의 근거로 작용할 것.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만원(2025년 예상 EPS 2,042원에 Target PER 20배 적용)을 유지하는 바. 향후 레이저 어닐링 장비 고객/응용처 다변화가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억원, %)

	4Q24P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492	38.9	198.6	345	42.7
영업이익	99	66.7	210.2	74	33.7
세전계속사업이익	152	116.2	232.6		
지배순이익	129	106.0	221.8		
영업이익률 (%)	20.1	+3.4 %pt	+0.8 %pt	21.4	-1.3 %pt
지배순이익률 (%)	26.2	+8.5 %pt	+1.9 %pt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P	2025F
매출액	1,329	1,071	1,167	1,415
영업이익	55	86	233	376
지배순이익	93	132	293	386
PER	15.4	16.0	8.1	8.8
PBR	0.8	1.1	1.1	1.3
EV/EBITDA	3.7	8.8	3.5	4.0
ROE	5.4	7.2	14.7	16.7

자료: 유안타증권

